



▲ 전북 이차전지 심포지엄에서 귀빈과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송단비 기자)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을 위한 이차전지 심포지엄 개최

지난 3일, 우리 대학 온누리홀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선정을 축하하며 '제3회 미래전북포럼: 전북 이차전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래전북포럼은 전라북도 산업 생태계 변화와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 소멸 대응 의제 발굴과 지방 시대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올해 9월부터 매달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광영 전북도지사,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성호 KIST전북분원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장,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강영구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위원, 김흥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배터리 산업 동향 및 기술개발 전망, 사업 분야별 슈퍼커패시터 적용 사례, 전고체 고분자 전지의 현황과 전망,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 현황 및 재활용 기술과 같은 이차전지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강연과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또한 HARA

Masahiko 독일 아헨공대 방문교수의 '일본과 유럽에서의 도료공업대학의 환경 에너지 혁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무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을 기반으로 전라북도가 세계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미래전북포럼은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4차 미래전북포럼 행사는 내달 중순에 박진배 총장이 회장직으로 있는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주관으로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송단비 기자(danbee425@jj.ac.kr)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새 단장 마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요"

지난 10월 25일, 우리 대학 신문방송국이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문방송국을 접하던 사용자들은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뉴스 및 방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웹 디자인이다.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선했다. 사진, 영상 등 미디어 중심으로 메인 화면을 구성하고 주요 기사, 일정 등 독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홈페이지에는 총 13개의 대학신문사 관련 카테고리가 있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카테고리를 7개로 간소화했고 'JEBS 교육방송국'이 별도로 분리돼 세분화된 메뉴와 함께 재탄생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신문방송국 소개'란은 신문방송국의 활동과 비전, 역할 등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신문방송국이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고 가치를 추구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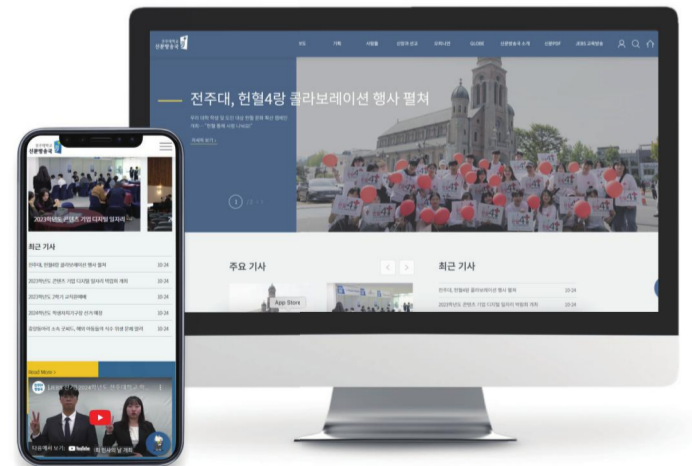
마지막 사항으로 제이제이가 들어간 아이콘(GUI)을 클릭하면 대학신문사와 교육방송국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나타나, 문의 및 독자투고, 라디오 사연 등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방송국 유튜브 채널, 이전 신문 보러 가기, 전주대학교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링크가 제공되어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방송국의 이진희(영화방송학과4) 국장은 "신문방송국 홈페이지가 새로워지면서 학우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새로운 신문방송국의 웹 주소는 www.jj.ac.kr/jjnews이며, 관련 문의는 063)220-2441(운영실) 또는 각 부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할 수 있다.



새로워진
신문방송국



|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깊어지는 가을, 모두가 주인공인 JJ체전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JJ체전이 진행됐다. JJ체전은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로, 각 단과대학이 단합하여 참여하는 행사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인문콘텐츠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의과학대학, 공과대학, 문화융합대학, 문화관광대학, 사범대학 총 8개의 단과대학이 참여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축구, 농구, 족구, 피구, 발야구, 풋살, 계주, 줄다리기와 e-sports 종목으로 구성됐다. 첫째 날에는 축구 예선, 농구 예선과 준결승, 피구 예선과 준결승, 발야구 예선이 진행됐다.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축구 경기로 JJ체전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축구 경기는 인문콘텐츠대학과 문화관광대학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사범대학과 경영대학, 문화융합대학과 의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이 맞붙게 되었다.

농구 경기는 경영대학과 사범대학, 문화관광대학과 의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과 인문콘텐츠대학, 공과대학과 문화융합대학으로 경기가 이루어졌다. 그중 경영대학과 사범대학의 경기가

50대 55로 치열한 승부를 가렸고 그 끝에 사범대학이 올라갔다. 피구 경기는 의과학대학의 활약이 있었다. 준결승에서 인문콘텐츠대학을 꺾고 결승에서 사회과학대학을 이기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마지막 발야구 경기에서는 인문콘텐츠대학이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을 이기고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다음 날도 JJ체전을 향한 학생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날은 축구와 농구 준결승과 결승, 계주, 줄다리가 진행됐다. 축구 결승에는 인문콘텐츠대학과 문화융합대학이 올라갔다. 이번 대회의 이변을 일으킨 대학과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대학의 맞대결인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치열했던 승부 끝에 결과는 문화융합대학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이 외의 결과로 농구는 공과대학, 족구와 줄다리는 사회과학대학, 풋살과 계주는 의과학대학, 발야구 종목은 인문콘텐츠대학이 우승하였다. 전 종목에 있어 여러 단과대학이 골고루 우승을 차지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즐기는 화합의 장이 이루어졌다.



| 마경진 기자(alfpwnsgh12@jj.ac.kr)

“내 일(JOB)을 잡(JOB)아!” JJ 취업박람회 개최

지난 1일, 도내 우수기업-공공기관 25개 사와 함께 도내 우수 일자리를 연계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JJ 취업박람회’가 개최됐다.

JJ 취업박람회는 기업 설명관, 취업 선배 현직자 멘토링관, 통합상담 컨설팅관, 이벤트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기업 설명관 부스에는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 10곳과 이피캠텍(주)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 5곳, ㈜하림 등 우수기업 10곳 등 총 25곳이 참여하였다. 박람회에 온 청년들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채용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

취업 선배 현직자 멘토링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신협 등 5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대학 졸업생이 멘토로 참여해 합격 노하우나 채용 과정에 따른 취업 준비 과정을 공유했다.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라북도 일자리센터는 통합상담 컨설팅관을 운영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 고용정책과 청년 일자리정책 정보, 취업 준비 스트레스 상담까지 실질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설명관, 컨설팅관 외에도 취업 증명사진, 퍼스널컬러, 직업 운 타로 등 취업에 도움이 될만한 이벤트성 부스들이 꾸려졌다. 현직자 멘토링관과 더불어 이벤트관 부스는 다른 곳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진배 총장은 청년 구직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커피와 음료를 전달하며 “전주대 JJ 취업박람회 행사를 통해 도내 우수기업에 대한 청년 구직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청년들이 지역인재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앞으로도 도내 우수기업과 구직자 간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도내 우수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최

지난 2일, 우리 대학 스타센터 101호와 107호에서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최근 3년 이내 임용되고 다양한 입직 경로를 통해 들어온 신규 공무원이 직접 진행해 자신의 합격 후기와 근무 경험에 대해 특강을 했다. 또, 학생들과의 1:1 개별 상담도 진행했다.

스타센터 101호에서는 △공채 5급 △공채 7급(세무) △공채 9급(행정) △지역인재 7급(행정) △경찰 △공군 △조폐공사 △도로공사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들과 1:1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14시부터 20분간 ‘공직 커리어 리뷰’가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인사처 지은성 사무관은 공무원 보수, 승진, 조직문화에 대한 소개를 통해 공무원의 장단점을 전달했다. 15시부터 16시까지는 7급 지역인재로 공무원이 된 인사처 이종원 주무관이 진행하는 공무원 시험 멘토링이 이어졌다. 이후 50분간 현직자들이 참여하는 1:1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이후 개별 상담 시간을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2011년부터 매년 공직박람회를 개최해 공시생과 대학생 청년들에게 공직 채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지역 청년과 현장 소통을 위해 13년 만에 전국 대학, 고등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충청지역에서 개막하여 10월 영·호남, 11월 호남·강원 12월 영남 지역까지 3개월간 총 35회에 걸쳐 전국 14개 대학과 14개 고등학교에서 개최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청년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무원과 청년이 서로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교수회, 교원장학기금 수여식 개최

교수회는 지난 10월 18일(수) 예술관 JJ아트홀에서 개최된 ‘2023학년도 2학기 교수회 교원장학기금 수여식’에서 재학생 16명에게 총 8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 수여자들은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이 뛰어난 재학생을 교수회원이 추천한 후, 교수회 집행부 회의를 통해 선정됐다. 교수회는 학업에 전념하고 동시에 동료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범적인 학생들을 찾아내어 후보를 추렸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 추천 교수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및 학업 지원의 목적으로 각 50만 원의 장학금과 함께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교수회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교수와 학생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꿈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학 내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주대학교 교수회는 15년여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

수자치기구이자 학칙기구로, 교수들의 자긍심과 교권 수호 의지로 사명감과 책임감 및 주인 의식을 고취하면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사 제공: 전주대학교 교수회

전라감영 풍패지관, 전주를 담다

전주시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1일 까지 12번에 걸쳐 운영된 '전라감영 역사 탐방! 전라감사의 하루'를 성황리에 마쳤다. 프로그램을 체험한 시민과 관광객들은 전라감영과 전라감사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었다.

전라감영은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는 지방 통치 관서로, 조선왕조 500여 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전라도의 심장부였던 전라감영은 '충청감영'과 '경상감영'과는 달린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으며, 규모는 무려 '평양감영'의 다음이었다.

2005년, 전주시는 호남의 으뜸 도시인 전주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청이 신도심으로 이전하면

서 전라감영 복원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5년 구도청사 철거를 시발점으로 2020년 10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원형을 되찾은 곳은 선화당과 내아, 내아행랑, 관풍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핵심 건물 7동이다.

11월에 진행된 프로그램은 낮 시간대의 '조선 선비들의 풍류' 체험과 저녁 시간대 진행되는 공연인 '전라감사의 하루' 분야였으며, 시와 서예, 전통악기, 다과 체험을 통해 선비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포토존, 전통 놀이 체험, 관찰사의 업무를 재해석한 극과 공연이 진행됐다. 해당 공연은 전문 연극배우 11명이 참여해 관찰사의 하루 업무를 연극으로 풀어내고 이어

전통 무용과 퓨전 국악 공연도 펼쳐졌다.

김은성 문화유산과장은 "전라감영의 역사적 사실을 홍보하고, 전라감영을 언제든 지 찾을 수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며 "전주시민과 관광객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라감영 풍패지관의 동절기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관광객을 위한 영어 해설 투어도 준비되어 있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시간의 맛,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발효 식품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 유일의 국제 박람회인 '제21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IFFE)'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열렸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정부 공인 국제인증전시회로서 전 세계의 발효 식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 교류하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발효의 미래가치 홍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한국 발효 식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산업 엑스포이다.

전주시는 한국의 대표 식품산업 지역으로, 국가 클러스터 단지 조성과 더불어

전국 최고의 식품 관련 R&D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농식품 지원을 통해 식품산업의 최적지 형성을 강조했다.

'발효, K-푸드의 미래'를 주제로 미국, 이탈리아, 호주, 일본, 베트남 등 해외 20여 개국이 참여했으며, 350개 기관과 기업이 420여 개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올해는 K-FOOD 특별전, 푸드테크 기술 연구개발 상품전, 글로벌 발효 식품전, 2023 IFPE 우수상품전, 신제품 시사회, 전라북도 정책홍보관 등으로 구성된 특별 기획전시를 확대했다.

또한,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부스를 비롯한 시설물 설치에 재활용 자재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푸드트럭 등에서는 생분해 용기를 사용했다.

한편, 부대행사로 문화, 공연프로그램으로 버스킹 공연, 향기 테라피 강좌를 진행하였다. 또, 김치 만들기, 고추장 만들기 등 발효 식품과 관련된 42개의 체험 활동으로 엑스포의 재미를 더했다.

| 황순호 기자(hsh9317@jj.ac.kr)

빈대 출몰로 인한 공포, 전국적 대응 시작

지난 9월 대구의 한 대학교 신축 기숙사에서 빈대가 발견된 후, 국내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빈대의 출몰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빈대 발견 신고가 계속되자 지자체들도 빈대 박멸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매개체 분석과에서 보고한 빈대 정보집에 따르면, 빈대는 흡혈욕구가 강하고 주로 야간에 흡혈하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한다.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등 현재까지 질병을 매개한 기록은 없으나 가려움증을 유발하여 이차적 피부감염 생기기도 한다. 또한 드물게 여러 마리에 의해서 동시에 노출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가 일어나

고열 및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모기에 물린 것보다 훨씬 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 빈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소 방문 즉시 빈대가 숨어 있는 공간을 확인한다. 빈대는 섬유질, 목재, 종이로 된 틈새에 숨어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침대, 매트리스, 소파 등 틈새를 잘 확인해야 한다.

전라북도에서는 빈대 방제와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북도 빈대 합동대응 TF'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빈대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시·군 보건소에 '빈대 상담창구'를 개설해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빈대 출몰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빈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온라인에서 검증되지 않은 빈대 퇴치법이 확산되고 있다. 빈대는 빛을 싫어하므로 방의 불을 켜면 숨어 버린다는 빈대의 습성을 듣고 24시간 내내 집의 모든 불을 켜놓고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또한 식용 규조토를 뿌리라는 조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규조토 가루는 먼지가 폐에 흉터를 남기는 규폐증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 전문가들은 과잉 대응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송단비 기자(danbee425@jj.ac.kr)

전북도와 럽피스킨 바이러스

최근 소 럽피스킨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럽피스킨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한우 구매를 자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럽피스킨 바이러스는 시중에 유통되는 한우고기의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럼피스킨 바이러스는 한우를 포함한 소에게만 나타나며, 곤충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럽피스킨 발생 농장의 소 또한 발생 즉시 살처분되기 때문에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는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우고기 등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다.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를 먹는 것

에 대해서도 인체에 영향을 없다고 밝혔다. 충분한 임상을 거친 백신을 접종하고 있을뿐더러 유통에 까다로운 유럽연합(EU)도 백신에 대한 유효성과 안정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부안군에서 첫 럽피스킨병이 발생한 이후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하였다. 도내 한우, 육우, 젖소 50만 200여 마리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다. 이후 뒤늦게 발견된 실제 사육 6,000여 마리까지 추가 접종을 마무리했다. 백신은 접종을 기점으로 항체 형성까지는 최대 3주가 걸린다. 11월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정읍은 2,539곳의 농가에서 총 10만 2,781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 소 사육량으로 볼 경우는 전국 최대 수준에 이

른다. 부안과 고창 사이에 있는 정읍에서는 럽피스킨에 고립된 상황이다. 만일 정읍마저 럽피스킨에 노출되게 된다면 또 다른 명품 한우 브랜드를 소지하고 있는 장수 역시 이미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소 농가와 출입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조치 명령을 내렸다. 집중 소독과 전화 예방, 역학조사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도 방역 당국은 의심축 신고 이후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사람과 가축 간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감염축의 격리, 소독 등의 방역 조치 강화로 전북도 지역의 럽피스킨병에 대해 힘쓰고 있다.

| 하늘 기자(neul0603@jj.ac.kr)

JEONJU UNIVERSITY 전주대신문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을 소개할게!

대학신문에는 취재부와 편집부가 있어. 취재부는 교내 사건, 사고와 행사를 취재하고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일을 해. 그리고 편집부는 일러스트와 배너를 제작하고 신문 디자인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어.

교육방송국은 방송국 내부 재무와 일정 및 홍보 그리고 비품 관리등을 하는 제작부, 영상 기획 및 제작 총괄을 하는 기획부, 교내 방송 송출 및 교내 라이브 기술 진행을 하는 기술부, 영상 및 이미지 편집을 하는 편집부, 라디오 진행 및 리포터 활동을 하는 아나운서부가 있어.

홈페이지 오픈

기존의 인터넷 기사 중심의 홈페이지에서 신문방송국 전체 홈페이지로 새롭게 태어났어. 사진·영상 등 미디어 중심으로 메인 화면을 구성하고 주요 기사·일정·바로가기 등 필요한 정보를 우선해서 볼 수 있게 배치했어. 새로운 홈페이지(jjackr/jjnews) 많은 관심 부탁해.

| 김예은 기자(ekfzmsdl@jj.ac.kr)

신문을 읽어 보면 보여요

- 한 해의 네 철 가운데 넷째 철로 가을과 봄 사이이며, 낮이 짧고 추운 계절
- 소리가 무엇에 부딪쳐 되돌려 나오는 현상
- 마지막 사항으로 제이제이가 들어간 ○○○을 클릭하면 대학신문사와 교육방송국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나타나, 문의 및 독자투고, 라디오 사연 등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 2일 ○○ 10시에 진행된 추구 경기로 JJ체전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 심포지엄에서는 배터리 산업 동향 및 기술개발 전망, 사업 분야별 슈퍼커패시터 적용사례, 전고체 ○○○ 전지의 현황과 전망,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 현황 및 재활용 기술과 같은 이차전지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강연과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는 여전하며 소비 위축 현상으로 인해 여러 한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
- 교수회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교수와 학생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꿈의 실현을 위해 ○○○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934호 정답: 따뜻하게입어요

[934호 정답자]
- 국어교육과 박재일 - 경영학과 이승아
- 건축학과 강희연

* 알림 *

※ 보다 많은 학우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2회 연속 당첨은 제한하며, 동일 학과는 2명으로 제한합니다.
※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12월 6일(수)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3명을 뽑아 유료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 정답자 발표: 935호(12월 20일) -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추억 속 으뜸장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근자로 들어설수록 교권은 그림자의 위치만큼 추락하고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타살 정황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사망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 담당이었고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중 정치인이 있어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등의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소문들이 퍼져가고 있다. 여러 잡음 사이 교사가 교직 생활을 버거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생전 일기장이 공개되어 화제다.

일기에는 “금-주말을 지나면서 무기력 처짐은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 + OO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어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라며 자신의 힘든 감정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서울교사노조는 일기를 보고 “고인이 생전 업무와 학생 문제 등 학교생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노조가 제보를 통해 학생 중 (한 명이)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해 고인이 힘들어했다는 정황을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라”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고인에게 감질을 한 ‘연필 사건’의 양측 당사자인 학부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연필 사건’이란 고인이 교사로 활동하는 반에서 한 여학생이 앞자리 남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는 장난으로 시작됐다. 고인은 장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남학생의 이마에 연필이 긁히는 실수를 만들어냈다. 서울교사노조는 동료 교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고인이 ‘연필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학부모는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다. 지속적인 전화와 민원으로 괴롭힘당한 고인은 방학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는 포부를 동료 교사에게 밝히기도 하였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숨진 교사의 심리 부검 결과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를 규명할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경찰청 관계

자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사 상황과 심리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연필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조사 역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 모인 12만여 명의 교사 집회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사망 교사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순직 처리를 외쳤다. 교사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이라 칭하며 법 개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교권 추락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정서적 학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회에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도 바랐다. 또,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처리를 경찰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10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는 1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사망 원인은 최근 몇 년 새에 급증했다. 18일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초·중·고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2014~2017년 평균 한 자릿수였으나 2018년에 19명으로 늘었다. 이후 2019년에 17명, 2020년에 19명에서 2021년에 25명까지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20명이 숨졌다. 올해에도 8월까지 14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태규 의원은 사망한 교사의 연령대를 살폈다. 20~30대 교사가 전체 사망률의 41.7%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젊은 교사의 자살이 많다는 것은 최근의 교권 침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서울과 대전, 용인 등에서도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던 교사들 역시 목숨을 잇달아 끊는 일이 발생하였다.

최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4법’이 발표됐다. 교권 보호 4법이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뜻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의 직위해제를 까다롭게 하며,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교사 권한도 확보됐다. 수업 방해 학생의 교실 분리 권한에 대해서 교원 52.2%는 여전히 ‘보호자의 민원과 아동학대 문제 제기’가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교사 과반은 학생 분리 시 ‘별도 인력 확보(58.4%)’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분리 학생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놓고 학교 혼란과 교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을 적절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는데 해당 행위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사와 여러 단체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처벌법 등의 즉각 개정,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 지원·학칙 표준안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전국의 초·중고 교사와 예비 교사의 아우성을 법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 중 제시된 주장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교권 4법’의 효력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권 4법’의 발단이 된 서이초 교사를 포함하여 지난 5년간 극단 선택을 한 교사가 100명 이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신청자 기준 15%밖에 해당하지 않는다.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학교폭력 조사 처리의 당국 이관도 필요하다. 하루빨리 학생과 선생이 화합하여 학교가 친선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기사 | 하늘 기자(neul0603@jj.ac.kr)
디자인 |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교권보호 4법' 주요 내용

교육기본법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음

초·중등교육법
학생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함

교원지위법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교원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함

유아교육법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최근 카페 매장에서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환경보호 및 절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꺼냈다. 2018년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2019년에는 대형매장 내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했다. 2021년 말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지난 4월 환경부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재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탄소중립에 반대하는 환경 정책, 일회용품 규제 완화

지난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11월 24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들도 불편을 호소하자 환경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라 본 것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년 계도기간 내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는 단속하지 않는다. 다회용 컵은 세척할 인력이 필요하고 종이 빨대는 가격이 더 비싸기에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지난 일회용품 규제들

일회용품 규제 역사는 20년 전부터 시행됐다. 2003년 1월 1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했으나, 회수율이 낮은 이유로 5년 뒤 폐지되었다. 그리고 10년 뒤 중국이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일회용품 규제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쓰레기 산 대란’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2019년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시행했으며, 2019년 4월 1일

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 슈퍼마켓(매장 크기 165㎡ 이상)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가 시행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금지는 유예되었으며, 방역을 이유로 비닐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코로나 방역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2022년 4월 1일 일회용품 사용 재금지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11월 24일 규제품목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품목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체육시설 합성수지 응원 용품, 대규모 점포 우산 비닐,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제과점 비닐봉지 등이다. 또 2022년 12월 세종·제주에 한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했다. 하지만 올해 9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사실상 무산됐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나친 규제일까?

일각에서는 일회용품 규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일회용품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또한 굉장히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주장이 많다. 카페에서 제공하는 종이컵은 규제 대상이지만 합성수지 뚜껑, 컵홀더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은 30페이지에 달한다. 이러한 내용을 자영업자, 소비자가 숙지하면서 생활하기란 어렵다는 주장이다.

해가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문제점

그러나 매년 빨라지는 봄꽃 개화 시기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겨울이 가까워졌는데도 모기에 물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모기 개체수가 증가한 이유는 기후 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을 겨울까지 따뜻해지면서 모기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10월 둘째 주 기준 작년보다 2.5배 증가했다. 최근 축산농가에 심각한 전염병으로 알려진 ‘럼피스킨병’도 모기와 같은 곤충을 통해 바이러스를 옮기는 병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한 모기의

피해는 심각하다. 또, 한국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700명을 넘어섰다. 2011년 800명대를 기록했던 12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작성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2022’ 보고서에서 공개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에너지와 산업생산, 제품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심이 된다. 이 통계에서 한국의 2021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 2천680만 톤이다. 208개국 중 7번째로 많은 배출량을 기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 한 개를 만들고 폐기하는 데 23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또한 종이 빨대와 같은 대체 일회용품도 플라스틱보다 빨리 썩는 장점이 있지만, 플라스틱 빨대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연구가 있다. 대체 일회용품을 쓰기보다 다회용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산업 그리고 개인의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법제화된 규제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관점에서 일회용품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배달 음식 전문점까지 생겨날 정도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환경문제를 생각해 볼 때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이다. 생활 속에서 작게나마 일회용품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 에코백 사용과 같은 직접적 실천뿐만 아니라 윤리적 소비와 같은 간접적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사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디자인 |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독자투고 원고모집



13면 오피니언면에 실릴 독자투고 원고를 받습니다!

자격: 전주대학교 학부 재학생
주제: 자유
분량: 2000자 내외(A4용지 1장 반)
접수: news@jj.ac.kr
문의: 신문사 편집국 063-220-2442

제2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전주대 졸업생 천기녕 학우 작품 수상



지난 16일, '제2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이번 건축문화상 수상작으로 학생 부문에서 건축학과 졸업생 천기녕 학우가 출품한 작품이 대상을 차지하였다. 자원순환을 창의력 있게 표현한 수상 작품을 알아보고 준비 과정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위해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16학번 건축학과 소속 천기녕이라고 합니다. 인터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 이번 '제2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학생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시상식이 진행되어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공모전에 처음 도전해 보기도 하고 워낙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기에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상을 수여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Q.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설계작 'UPCYCLING PARK'는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거쳐 남아있는 사회문제를 활용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폐기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는 비단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 시설이 가동돼야 하는데, 처리 시설은 현재 내 집 앞에는 있으면 안 되는 모두가 꺼리는 시설입니다. 저는 처리 시설은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해결이 되고, 이를 문화적 요소로 이어지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저는 처리 시설을 하나의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했습니다. 폐기물을 제대로 분리 배출해서 소각한 후 남은 자

원으로 업사이클링 아트를 창작하고 전시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꿈꿨습니다. 또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하고 다시 폐기물 처리하는 자원순환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 모습을 그렸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폐기물의 심각한 문제와 경각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처리 시설의 인식을 변화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공존해야 하는지 제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Q. 출품한 작품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졸업작품의 목표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건축은 본인과 가까울수록 강력한 힘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고 집 앞, 학교에 버려지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폐기물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들이 한번 사용하고 그 의미를 잃어버릴까?', '내가 버린 폐기물은 어디서 누구에 의해 처리되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이 뿌리를 내렸고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조사하고 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Q. 기획 과정부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준비 과정은 어떠셨나요?

A. 기획하는 과정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여태 해보지 못한 새로운 건축을 한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은 프로젝트에 맞는 대상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대상지를 돌아다니고 인터뷰를 거쳤습니다. 또한, 처리 시설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와 규모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도면자료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님들과 다양한 논의를 거쳤고 방향성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충분한 사례 조사와 인터뷰들은 제가 도면을 작성하는 데에 많은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Q. 창작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처리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배출가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한 방법은 수 많은 조사를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외벽에 에어커튼 존과 트리플 글래스를 적용해 처리 시설 내부의 공기를 차단하여 공기의 흐름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부에서 환기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무산소 연소방식을 택해서 배출가스를 줄이고 2단계 정화 필터를 활용해 수증기만을 남기는 과정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도면화하여 표현하였고 프로젝트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작품을 구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제가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대상지에 필요하고 부족한 시설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충해 줄 것인가?'이었습니다. 군산의 밀도가 높은 오래된 주택가에는 공원이 부족합니다. 그를 반증해 주는 것이 철길마을입니다. 철길에 따라따닥 붙어서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마을이 철길마을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안점을 폐기물 처리도 있지만 노후화된 원도심에 부족한 공원의 형성으로 보았습니다. 건물 자체를 공원화하여 자연스러운 동선들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주민들이 쉬고 있

는 발밑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처리 시설이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대지에 처리 시설이 스며들어 있고, 문화와 공원이 이를 연결해 주는 요소로 계획되었습니다.

Q. 건축학과 졸업생으로서 재학 시절, 전공에서 배운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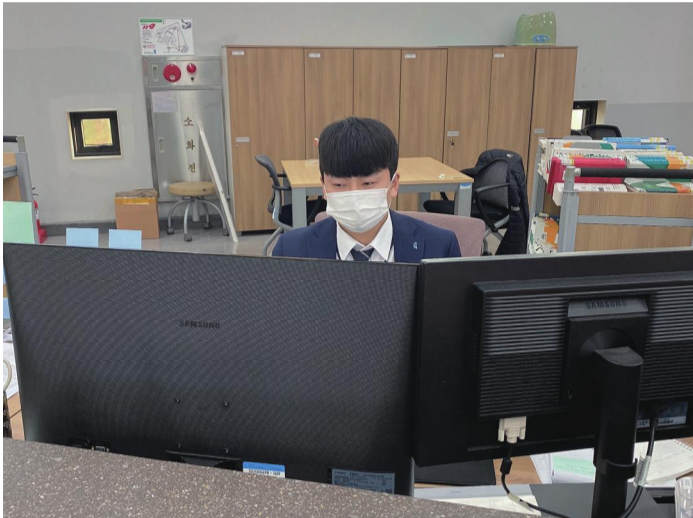
A. 전주대학교 건축학과에는 유능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수업은 도시의 가능성과 도시를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도시 공간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열성적으로 지도해 주셨던 건축설계(6) 김준영 교수님, 현대건축의 발생과 그 배경 그리고 현대건축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쉽게 알려주시고 본인의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현대건축사 심세보 교수님, 마지막으로 업무시설 건축에 있어서 고층 건축물을 설계하고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법을 지도해 주신 건축설계(8) 권혁범 교수님께 배웠던 강의 내용이 기억에 남고 제 능력을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Q. 앞으로 건축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최종적인 건축 목표는 건축사가 되어서 제 이름으로 다양한 건축적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획일화된 건축보다는 사람들에게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주려고 노력하는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고 싶고,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더 성장하고 항상 건축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되묻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요, 도서관에서 준비한 2023 독서주간 이벤트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서관에서 독서주간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약 1,6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러한 높은 참여율의 배경에는 스위치 게임으로 저명한 '놀러 오세요. 동물의 숲'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이 호응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포스터 속 생소한 주민 캐릭터는 도서관 측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각각의 동물이 도서관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단순한 흥미에서 그치지 않고 도서관의 '보존서고'를 알리거나,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학우들의 시작을 만들어 주고 일부 수익을 불우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좋은 취지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도서관의 아이디어 밴크를 담당하는 김대선입니다. MBTI 성격 유형으로는 사람을 좋아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ENFJ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즐겁게 방문할 수 있는 흥미로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이번 독서주간과 작년 독서주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작년 독서주간의 테마는 '다독다독 추억과 함께하는 전주대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추억의 놀이 중심으로 행사를 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청춘의 한가운데, 낭만 있는 JJ 도서관'을 주제로, 동물 사서를 중심으로 하는 총 8가지의 행사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독서 활동 능력과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의 도서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를 선정하여 도서 큐레이션 한 행사인 '골라봐요 랜

덤도서', AR 가상 도서관을 활용하여 도서관 투어를 진행한 '놀러와요, 도서관의 숲', 대출 시 돌림판을 돌려 상품을 증정해주는 '돌려봐요, 북 돌림판', 보존서고에서 미션 수행 후 최종 키워드를 찾아 탈출하는 '오싹해요, 보존서고', 도서관 이용규칙 독서 퀴즈로 구성된 '올려봐요, 도서관 골든벨', 도서 필사 진행 후 큐레이션 서가 전시하는 '적어봐요, 당신의 책', 미납도서 반납 목적으로 연체료 면제가 진행된 '지워봐요, 연체료', 플라마켓 기업과 연계하여 도서 교환전을 진행하는 '찾아봐요, 나의 물건'으로 총 8가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Q. 준비된 프로그램이 총 8개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었나요?

A. 이번 독서주간은 7회째로 진행된 행사입니다. 작년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서 선생님들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이를 위해 많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독서주일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 첫 번째는 행사 진행 일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행사 진행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도서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중간고사 다음 주로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고 행사 구성 및 담당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담당자별로 행사 진행 준비를 하고 여러 피드백을 거쳐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해의 유행 파악과 학생들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A. 독서주간 행사 운영은 도서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동시에 이는 도서관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 번 도서관을 경험하게 되면 학생들은 지속해서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졸업 전까지 도서관에 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에 무관심한 학생들의 첫 이용의 발판을 마련하고 행사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Q. 학생들의 참여율과 내년 독서주일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학생들의 참여율은 매우 높았으며, 적극적으로 행사

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독서주간에는 더 많은 학생이 도서관 활동에 참여하고, 독서 및 학습에 관한 관심을 지속해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독서주일을 통해 학생들이 도서관과의 교류를 통해 학업 외적인 측면에서도 발전하고 도서관과 친해져서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참여를 더 끌어올릴 방법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을까요?

A.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과 현수막, SNS,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내용 전달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 진행 시에는 학과, 학생회관 게시판 공지와 지역 공공기관에 게시글 작성과 홍보 요청을 하여 참여를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위 인터뷰를 통해 대학신문사에서 홍보해 주신다면 더 많은 학생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Q. 다음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새로 시도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A. 기존에 반응이 좋았던 행사의 장점을 강화하고 기존에 이용이 적었던 행사를 보완하며 진행하되, 그해 유행에 맞는 행사를 기획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사 중 '오싹해요, 보존서고'라는 행사는 오래되고 이용률이 적은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보존서고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할로윈 시즌에 맞게 구성된 행사입니다. 이를 동안 약 200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대기팀이 약 20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후에도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워, 목요일에 추가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위 행사를 보존서고가 아닌 도서관 자료실 전체를 대상으로 스케일을 키워 진행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 위 답변 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A. 사서로서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베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럴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에서 - 여러분 항상 향해하는 배, 항상 향해하는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학 생활 동안 하고 싶은 것 다양한 체험을 주저하지 말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서관 인스타 'jjunivlib' 팔로우해 주시고 도서관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사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디자인 | 송단비 기자(danbee425@jj.ac.kr)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생활을 위해

지난 1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3 KBO 포스트 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 경기에서 LG트윈스가 6-2로 승리하여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팬들은 현장에서 선수들의 우승 세레머니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격의 감정을 나눴다. 그러나 야구장을 찾았음에도 허탈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이 존재했다. 바로 노인들과 온라인 예매에 실패해 현장에서 취소 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왜 경기가 펼쳐지는 잠실구장을 코앞에 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을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소외 현상

먼저 '디지털 소외'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보편화된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나 관련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했고, 키오스크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이 절감되어 3년 동안 16배가 증가했다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영화관을 비롯해, 여러 문화생활에서 발길을 끊었다.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프로야구(KBO)는 다양한 연령층의 팬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년구단인 'MBC 청룡'을 인수한 LG트윈스 역시 많은 팬을 보유 중이었다. 21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모습을 보기 위해 70살이 넘는 노인 팬들은 표를 구매하려 아침 일찍 잠실구장

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시리즈는 전 좌석이 온라인에서 사전 예매됐다.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티켓은 취소 표뿐이었지만, 취소되는 표가 없어 사실상 구할 수 없다. 이는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현장 직관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했다.

누구나 공평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지만, 노인 중 일부는 디지털 소외로 인해 입장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시니어 전용석을 만들어야 한다", "현장 판매 비율을 늘려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10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한국시리즈 4차전 티켓을 65세 이상 LG 트윈스 팬에게만 양도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2. 할개 치는 온라인 압표

'압표'란 법을 위반하여 몰래 사고파는 각종 탐승권, 입장권 따위의 표를 말한다. 온라인이 덜 대중화된 시기인 90년대에는 영화관에서 표를 사재기하여 커플들에게 파는 압표상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많은 시기가 지난 지금, 예매가 온라인으로 바뀌어 따라 압표상들도 자연스럽게 온라인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현재 압표상들은 티켓을 대신 예매해 준 수고비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 판매하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 '2023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 티켓 외야 4연석이 130만 원에 판매됐다. 정가가 장당 3만 원인 것을 생각하면 약 10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KBO와 KBO리

그 티켓 공식 예매업체에서는 '문화체육부 및 프로스포츠회의 지침에 따라 압표 매매 행위에 대해 주최 측의 권한으로 예매 취소 또는 강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별다른 신고가 없으면 잡을 방법이 없어, 그대로 매매가 진행된다. 이러한 상황은 콘서트나 e-sports 등의 다른 장르에도 마찬가지로 있다. 아티스트가 강경 대응을 하고, 팬들이 거센 비난을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3. 모든 세대, 모든 팬이 공평하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날을 위해

문화 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디지털 소외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정가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는 온라인 압표는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우리들 스스로가 모든 세대의 이들이 즐거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 많은 이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향상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 |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1020@jj.ac.kr)

가장 천천히 달리는 연습, 『천 개의 파랑』

투데이는 죽어야 한다. 왜? 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관절이 망가져 아프기 때문이다. 왜?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이다. 왜? 인간이 원했다. 왜? 빠른 말만이 인간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이다. 왜? ... 투데이를 치료할 수는 없는가? 현재 인간의 의료기술로는 닳기 이전의 완벽한 관절로 되돌릴 수 없다. 또 다른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프기 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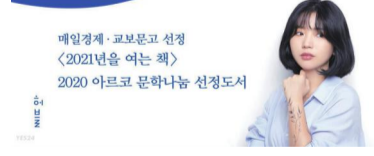
'천 개의 파랑'은 안락사를 앞둔 경주마 '투데이'와 인간의 실수로 탄생해 보통의 휴머노이드와 다르게 사고하는 '콜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 모녀의 이야기이다. 소설의 배경은 근미래며, 경마 경기의 기수가 더는 인간이 아닌 세상이다. 사람이 기수라면 말이 최고 속도를 내지 못 내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기기는 인간보다 작고 가벼우며, 떨어진다 한들 생명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는 연구생이 칩을 떨어트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닥에 떨어진 칩을 청소 담당자가 다른 칩 상자에 넣었다는 것이다. 둘 다 인간이 아닌 기계였다면 절대로 일으키지 않았을 사고였다. 그러니 콜리는 인간의 실수로 탄생한 셈이다.

세 모녀는 아버지이자 남편을 잃고 오랫동안 대화에 단절이 있었다. 로봇이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불협화음이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 것이다. 척추성 소아마비로 다리를 잃은 첫째 은혜, 그런 은혜에게 밀려 늘 뒷전이 된 둘째 연재, 두 명의 자매와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혼자 음식점을 영입하며 두 아이를 겨우 키워나가는 엄마 보경이가 이 소설에 주로 나오는 등장인물이다.

연재는 기계를 다루는 일에 재능이 있었지만, 소프트 로봇 연구 프로젝트의 면접에서 '왜 이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순간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어 답을 하지 못한다. 이후 계속 방황하던 어느 날 경마에서 낙마해 망가진 투데이의 로봇 기수, 콜리를 만난다. 콜리는 여타 다른 로봇과 달랐다. 하늘이 예뻐 바라보고 싶다는 이유로 말에서 떨어진 녀석에게 흥미를 느끼게 된 연재는 매료되어 거금을 들여 구매하고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로봇을 고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왜 로봇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떠올리게 된다.

보경은 바쁜 일상에 치이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가족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다가 콜리와 대화로 위안을 얻는다. 그렇게 보경과 콜리는 가까워지고, 어느 날 보경이 먼저 떠나보낸 남편을 그리워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운 시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야', '행복이 만병통치약이거든', '행복한 순간만이 유일하게 그리움을 이겨' 콜리는 더 뛰지 못해 어린 나이에도 죽음이라는 예정된 끝을 가진 투데이를 행복하게 할 방법을 학습한다. 그들은 '가장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통해 투데이에게 마지막 경기를 선물하고자 한다.



저자: 천선란
쪽수: 376쪽
출판사: 허블
국내 출간일: 2020.8.19.
장르: SF

기사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1020@jj.ac.kr)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 한국형 제시카법. 이것은 과연 사회의 안전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필요한 법일까? 아니면 이것이 성범죄를 잠재울 수 있는 최우선 과제일까.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한국형 제시카법, 사회 안전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필요



최근 들어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시민들은 성범죄 자체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에도 두려움을 갖는다.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범죄로 12년을 복역한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가 아무런 주거지 제한 없이 평범한 시민들이 사는 일반 주택가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거주지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급기야 지역에 거주하던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을 피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다.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폭행범에게 살해된 9살 소녀의 이름을 따 제정된 법이다.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학교·공원·교육시설 등 아동이 많은 곳에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영토의 물리적 특성, 거주환경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조건으로 세부 내용이 수정된 법이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그 습관이 인정되는 사람, 전자장치 부착 명령·판결을 받은 대상자 중 성범죄로 인해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다. 이들이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정된 시설'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법의 주요 바탕이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에게 한국형 제시카법을 적용하면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다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를 막을 가능성이 있는 장점도 있다. 조두순이나 김근식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인 경우, 출소했을 시에 재범을 안 할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이들 주변에 사는 일반 시민 중 언제 다른 피해자가 나올지 모른다. 제시카법은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만들어졌기에 성범죄자들의 기본권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범죄자들이 거주할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걸린다. 하지만 무작정 지역만 정해져 범죄자들을 몰아서 넣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나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의 근무자들이 거주지 주변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렇게 되면 CCTV나 가로등 같은 장치도 안전하게 바꾸기 때문에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나왔을 당시에 이중 처벌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불안보다는 나머지 지역이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될 소지가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범죄자 감독 기능 등의 이점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제시카법도 다양한 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1년 이상 연구했다. 완벽한 방안은 없었고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거주 시설의 위치나 형태가 언급되면 건설적인 논의 진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당연히 논란도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제시카법에 대한 논란보다 사회 안전과 시민들의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강점이 있기에 입법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기사 | 최혜림 기자(chr9406@jj.ac.kr)

한국형 제시카법, 과연 최우선 과제일까?

최근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사회적인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매체에서 성범죄에 대한 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나온 의견이 한국형 제시카법 개정이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기존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의 거주 환경과 특징을 고려하여 국내 상황과 맞게끔 내용을 수정한 법이다.

그러나 미국 내의 제시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강력한 법적 처벌에 비해 실질적인 범죄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심지어 성범죄자들이 살 곳을 찾기 어려워하며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2016년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법무부가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된 성범죄자 1,600여 명이 5년간 추적한 결과 주거가 일정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5%지만 그렇지 않으면 20%에 달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는 편법 논란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2015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제시카법이 공원 주위에 적용되는 것을 이용하여 제시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도심 내 포켓 공원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연스레 성범죄자를 도시 외곽과 길거리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범죄자를 처벌하고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이 되려 길거리에 범죄자를 돌아다니게 만든 것이다. 범죄자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 또한 성범죄 전과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대다수가 도심에 공공기관, 편의시설, 교육시설을 끼고 공동 주택을 형성하는 환경이면 이러한 문제는 한층 심화하여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정 거주 시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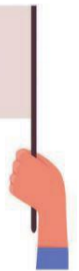
지어 성범죄자를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님비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정 거주 시설이 설치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향성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학교,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주거자를 제한하는 만큼 소아,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취지이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성범죄자들이 소아 성애증을 가진 경우를 많이 접하지만, 실질적인 성범죄자들 대부분은 소아 성애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통계청의 통계를 따르면 2011년에서 2022년까지 10년간 강간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로 확인하면 전체 피해자와 비교하면 소아 피해자의 경우 3%인데 반해 성인 여성의 비율은 무려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고려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아닌 성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한 번의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살아간다.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관점에서 그저 범죄자에게 강한 처벌만을 주는 제시카법이 급한 문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제시카법을 한국형으로 다듬고 제정하는 데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성범죄자가 지낼 지정 거주 시설을 지어야 하며 거주 비용은 성범죄자가 돈이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호 관찰을 위한 인원도 충원되어야 한다. 이보다 성범죄 예방 정책에 중점을 둔 지원 정책을 펼쳐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걸 방지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

기사 | 황순호 기자(hsh9317@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l020@jj.ac.kr)

NO



<사·자·성·어> 사랑을 실은 자전거 타고 성품채플 어디든지 간다 시즌 2 성료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가르치는 성품채플에서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 '〈사·자·성·어〉-사랑을 실은 자전거 타고 성품채플 어디든지 간다.'를 진행하였다. '〈사·자·성·어〉'는 자전거를 통해 성품채플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을 찾아가 자녀가 보낸 사연과 선물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며 일깨워 주는 프로젝트로 4박 5일간 전주대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완주, 논산, 군산, 영광, 여수까지 자전거로만 진행하였다. 이번 '〈사·자·성·어〉'에 참여한 선교지원실 최지웅 직원을 인터뷰하고자 한다.

Q. 안녕하세요. 이번 <사·자·성·어>는 학생들의 사연을 듣고 부모님을 찾아가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자·성·어>를 진행하며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A. 네, 이번에도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로부터 사연 신청을 받아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학교를 믿고 보내주신 부모님께 학교의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또 아이들의 영상편지를 통해 감동을 전달하면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Q. <사·자·성·어>는 자전거로만 이동하는 프로젝트였죠. 선생님께서는 처음 참여하셔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며 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지난 9월 선교지원실에 입사하게 되면서 맡게된 첫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너무 기대가 되는 한편, 체력적인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중에는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부모님을 만나 사랑을 전하고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순간이 되면 쌓여있던 모든 피로가 전부 날아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사·자·성·어>를 마무리하며 느낀 감정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 학생들이 쓴 편지를 읽어드릴 때마다 감동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부모님께 그동안 잘해드리지 못하고 못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저도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달해보고자 하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에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고, 또 그 안에 항상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부모님에게 다소 투박하지만 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 선교지원실 오여찬(ssd5206@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도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대학교회 206호)

11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을 길이 없어 그저 가만히 뒤돌아본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너무나 힘에 겨운 나날이다.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다.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감사를 잃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아우성, '사는 곳과 먹고 타는, 오로지 드러나는 것으로만 끊임없이 계급을 나누는 현실. 종종 가짜가 진짜를 압도하는 속살'(박태인 중앙일보 기자)로 표현되는 이 시대의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 데보라 노빌이 쓴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에 나오는 월 톰슨의 이야기이다. 미국 굴지의 식품업체 부사장인 그는 비행 행동을 일삼는 문제 청소년이었다. 그는 여자 친구를 태우고 돌아다닐 오토바이 살 돈이 없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보조 일을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종업원이 까다로운 고객과 말다툼을 했다.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모아 당부했다. 첫째,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라. 둘째, 고객이 우리에게 월급을 준다. 그러니 감사하라. 셋째,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나의 미래가 밝아진다. 늘 같은 훈시에 모두들 하품을 하였으나 월은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다. 무례한 손님을 대할 때마다 '감사의 세가지 원칙'을 떠올렸다. '감사로 일함에 대한 기쁨'에 흠뻑 빠진 월은 고객 인기투표에서 매달 1위를 차지했다. 사장의 배려로 월은 야간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값싼 오토바이 한 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식당 웨이터 보조 일을 시작한 건달 청년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은 주어진 작은 일에 감사로 최선을 다하는 '0.3초의 기적'이었다. 진짜가 가짜를 압도하는 속살의 참모습이다.

▼ 감사란 작은 모든 것을 돌아보며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아닐까. 감사할 때 감동이 일어나고 생명이 풍성해진다. 감사하면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깃든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 추수감사 절기를 보내며, 한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지 않은가.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렇게 권면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아멘.

장선철 교수 (前 상담심리학과)

기도문

전주대의 능력과 사랑이 되신 하나님!

전주대의 능력과 사랑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모든 만물이 형형색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캠퍼스의 곳곳이 붉고 노랗게 익어가고 우리의 젊음도 한층 더 성숙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의 젊음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중히 보내는 하루하루를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들판 곳곳에 많은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며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주대학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방대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앞으로 나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전도서 12장 1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전주대학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들은 어려운 시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는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이곳 전주대학교에 모여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며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전주대학교의 구성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늘 지치지 않게 도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장순 교수 (신학과경배찬양학과)

보다 확실한 예언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

“우리에겐 보다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벧후1:19).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서 지금 말하는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옳은 것이 진정한 예언이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세월의 발톱이 아무리 활취고 치명적인 풍상을 유발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성경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없다고 베드로는 고백한다. 진리의 빛이 두터운 오류로 덮여 보다 어두워진 때일수록 성경은 더욱 요긴하다. 성경을 읽고 탐구하는 것은 가장 깊은 예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당연히 사사로이 풀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성경의 긴 해석사는 진리의 정통성(orthodoxy)

와 보편성(catholicity)을 해석의 두 기둥으로 삼았었다. 물론 권위의 순서에 있어서는 정통성이 보편성에 선행한다. 정통성은 성경이 성경 자체의 주석이란 사실에 근거하여 “성경과 더불어”(cum scriptura) “성경 안에서”(in scriptura) “성경으로 말미암아”(per scripturam) 해석에 왜곡이나 오류나 충돌이나 모순이 있지는 않은지를 꼼꼼히 규명하는 잣대를 지칭한다.

즉 성경의 올바른 해석은 성경이 말하지 않은 침묵의 경계선은 함부로 범하지 않으면서(sola scriptura), 성경이 언급한 말씀은 도시 하나라도 묵언이나 망각으로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하는(tota scriptura) “오직성경-전성경”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보편성은 성경이 기록되던 선지자들 및 사도들의 시대부터 사도들의 제자들과, 그들의 제자들인 교부들과, 그들을 바르게 읽은 경건한 중세 학자들과, 그들의 문헌들을 섭취하며 교회의 부패 무더기를 제거하고 정통을 회복시킨 종교개혁 인물들과, 그들을 건강하게 계승하되 조직적 교육적 제도적 고백적 체계적 규모를 현저하게 고양시킨 정통주의 인물들과, 그들의 유산을 지금도 보존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알아온 진리의 도도하고 편만한 흐름을 일컫는다. 진리의 정통성과 보편성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 한 구절을 풀기 위해서는 그 구절 주변에 온전한 근거 맥락도 간과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성경 전체와 그 성경의 해석사라 할 인류의 시간 전체가 거대한 문맥으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그 문맥보다 크신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과 해석의 역사에도 섭리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 자신을 성경 푸는 최종적인 문맥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통성과 보편성의 요청

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입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서 발견된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고 검증할 도구도 없고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의 ‘예언’으로 성경의 보다 확실한 예언을 대체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의 규범적 계시를 짓밟아 교회의 터를 허물고 스스로 사도와 선지자로 지칭하며 다른 사도와 선지자를 추종자로 세우는 경솔하고 망녕된 행실까지 경건으로 여기는 무리의 광란에 너무 놀라거나 과도히 반응할 필요까진 없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의 제도적 권위를 남발하는 자들의 오만과 방자를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또 다른 극단의 무절제한 길을 걷는 동일하게 오만한 반작용의 주기적인 출현은 역사 속에서 늘 목격되는 상습적인 현상이다. “교회가 이단으로 장악되는 상황에서 성도의 유일한 피난처요 참된 기독교 진리의 유일한 시금석은 성경 뿐이라”는 황금의 입술 크리소스톰이 마지막 때의 혼돈을 갈파하고 내뱉은 경고성 탄식이 떠오른다. ‘마지막 때’라는 용어로 긴박감을 조성하여 차별하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제거한 후 은밀하고 추한 이유를 취하고자 하는 무리들의 광기를 제대로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진리의 샘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adscripturam)이다. 이런 필요성 제고의 수단으로 악한 날에 악한 자들도 적당히 지으신 주님의 섭리가 경이롭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

<쉽게 읽는 성경> ⑨



조재천 교수
(선교신학대학원)

종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요구하지만 그 긴 역사 동안 신앙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무엇으로 여기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서구에서 흔히 ‘근대’라고 일컬어지는 16세기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인간 정신이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발견하고 긍정하게 된 바로 그 시기 신앙에 있어서도 개인이 주인공으로 나서게 된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생각하는 나’에 인식의 확실성을 정초한 데카르트적 명제가 지배하던 시기에 기독교 역시 신 앞에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실존과 구원을 중심에 두게 되었다. 종교개혁에 관한 한 루터와 칼뱅, 그리고 수많은 개혁자들이 신 앞에서 각 개인의 자유롭고 다채로운 신앙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창했다. 적어도 개신교인들에게 진리의 기준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교회의 전통과 규범이 아니라 각 개인이 깨닫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종교개혁과 이후 기독교 신

학의 토대였다.

19세기 말 극동의 한반도에 개신교가 전래될 때 그것은 이미 깊이 개인화된 종교였다.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급속한 전환기에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는 축복이자 위협이었다. 한편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해 주는 평등과 해방의 복음으로 다가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교적 계층 사회와 가족이라는 집단적 토대를 흔드는 전복적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다. 20세기의 처음 절반을 식민 피지배와 동족 상잔의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보내는 동안 한국의 전통적 신분사회, 씨족 기반의 유교적 질서는 빠르게 해체되었다. 그 과정에 굳이 기독교를 주요한 동인으로 지목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제국주의 수탈과 전쟁이 가져온 물질적, 정신적 폐허로부터 생존해야 했던 개인들에게 사적 종교, 개인 구원의 신앙으로서 기독교는 현대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성서가 쓰인 시대에는 혈연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족과 집단의 정체성이 개인의 정체성보다 우선되었다. 구약성서에서 구원이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소속되는 것이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개인들은 하나님과 언약 체결의 파트너였다. 그러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각각 그들의 가족, 후손, 민족, 나라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했다. 여러 언약 중에서도 “거룩한 나라”라는 이스라엘 정체성의 핵심을 형성해 준 모세 언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

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출애굽기 20장 5-6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이든 불신실함이든 그 댓가는 당사자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집단주의와 연대성의 신학이 서서히 느슨해지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의 두 왕국이 모두 망하고 앗시리아와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당해 살아가던 때였다.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민족과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각 개인으로서 대할 것이라는 신탁을 듣는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다. ...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에스겔 18:2-4, 20절). 각 개인이 자신의 의로움과 악함에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신앙에 있어서 개인의 위치가 확보된 것이다.

천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형성된 구약성서의 공동체적 이상이 하루 아침에 부정된 것은 아니었다. 포로기 이후 성전이 재건되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전쟁과 재난, 외세의 지배가 이어지던 제2성전기에 유대인들은 ‘묵시’(아포칼립스

스)라는 장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의 도래를 꿈꿨다. 그 대망의 시기에 나사렛 예수가 등장했을 때 예수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열두 지파를 이어받은 열두 제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언약 백성을 이루고자 했다. 하지만 예수의 많은 가르침 중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각자의 고유한 인격과 능력, 상황대로 인정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실존적 구원의 메시지 또한 분명했다. 그의 공적 생애 동안 예수를 만났던 개인들은 각자의 처지와 성격대로, 각자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고유한 언어로 예수와 대화했다. 그들은 자기를 어떤 고정된 기대나 기준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 대해 주시는 구원자를 예수에게서 발견했다.

한 비유적 이야기에서 예수는 유대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배경으로 자신을 ‘목자’에,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양’에 빗댄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 양들을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요한복음 10장 3-4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불러주시는 체험을 하곤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깊은 고민과 꿈,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 감정과 욕망을 고스란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신, 그분과 인격적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한 측면이다.

기자칼럼



마경진 기자
(alfpwnsg12@jj.ac.kr)

디즈니의 도박 사업 진출

아이들의 꿈과 희망, 동심을 그려내며 가족주의적 이미지를 고수하던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스포츠 도박 사업 진출'이라는 놀라운 행보를 예고했다. 디즈니의 자회사이자 미국의 최대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스포츠 베팅 업체 '펜(Penn)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베팅 어플 'ESPN 벳(Bet)'을 출시한다는 것이다.

디즈니는 도박 사업 진출을 수년간 고민해왔다. 우리에게 익숙한 미키마우스와 겨울왕국 등 가족주의적인 이미지가 큰 만큼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디즈니의 CEO가 교체되면서 후임을 '밥 채펙'이 맡게 됐다. 그는 스포츠 도박에 관심이 많았고 디즈니 브랜드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도박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냈던 디즈니의 이러한 결정에는 수익성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디즈니가 적극적으로 스포츠 사업을 진행하자 내부에서 우려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디즈니의 베테랑이었던 사회적 책임 담당 임원이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디즈니의 IR 담당자에게 연락해 스포츠 도박 사업 관련 계약을 맺을 경우, 환경, 사회, 거버넌스 규정을 따르는 일부 유럽 펀드에서 디즈니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 3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스포츠 도박 규모는 76억 달러에 달했다. 내년 매출 규모는 118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미국의 스포츠 도박 시장은 전무후무한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OTT 서비스의 발전으로 케이블 유선 방송을 끊는 일종의 '코드 커팅'현상이 확산하며 ESPN을 비롯한 디즈니의 TV 부문 수익이 35%나 감소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TV, 네트워크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데다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마저 부진한 성적표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디즈니 플러스'는 구독자 1,170만 명 감소라는 부진한 실적으로 디즈니의 주가는 2년 전 170달러에서 현재 82.65달러로 급감해

ESPN 전체 매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달했다.

이에 디즈니는 모바일 스포츠 베팅 앱 'ESPN 벳'의 출시를 통해 18~34세 젊은 남성 이용자들의 유입과 수입 악화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ESPN 벳'은 올해 11월부터 펜 엔터테인먼트가 모바일 스포츠 북(스포츠 베팅 웹 사이트)을 운영하는 미국 16개 주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 문제를 두고 디즈니의 선택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당장 회사를 매각까지 고려해야 하는 수준인 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의 모든 주요 미국 스포츠 리그가 스포츠 북과 계약을 체결했고 도박이 스포츠 미디어 환경을 장악했다. 드래프트킹스와 팬 듀얼 광고는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TV 광고, 팟캐스트 광고 등 수많은 광고판에서 볼 수 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은 향상되고 새로운 베팅 앱에 힘을 실어, 향후 몇 년 동안 디즈니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반대 측에서는 브랜드의 상징성과 같은 이미지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많은 사람에게 회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은 무한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에 쉽지 않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한 대형 투자자는 디즈니가 도박 사업을 주력으로 집중할 경우,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디즈니가 스포츠 베팅 어플을 기획한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를 사용하고 관심을 두는지가 중요 포인트로 작용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박'과 '디즈니',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동심과 수익성, 두 가치를 모두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자칼럼



강수아 기자
(xv0915@jj.ac.kr)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어지고 있다

지난 8월 30일 통계청은 '2022년도 출생 통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출생율은 0.78%로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천 명(-4.4%) 감소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출생 세대별 인구수는 860만 5,497명, 여성 1인당 평균 6자녀에서 2018년에는 여성 1인당 1자녀 미만으로 떨어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아 우리나라는 저출산 사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1. 원인

저출산이란 합계출생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평균 2.1명)을 밑돌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9 to 6이다. 9 to 6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단어로,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대부분의 OECD 국가 근로자보다 유급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남성의 경우 주당 47.8시간, 여성의 경우 주당 45.2시간으로 OECD에서 가장 긴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을 보여준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게 되면 저녁을 먹는 시간, 씻는 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은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써야 하므로 정작 직장인들을 위한 여가시간은 거의 남지 않는다. 또한 퇴근 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일주일에 몇 번씩 동료들과 사교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점도 포함하면 직장인에게 무언가를 할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들고, 이에 따라 여성 고용률은 평균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만 25~54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력 단절 여성 실태조사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비중은 42.6%였으며, 그중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경험이 58.4%로 무자녀 여성보다 높았다. 이로 보아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 회사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정규직으로 복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직장 내 정규직 여성의 비율이 낮아 우리나라는 OECD에서 성별 임금 및 고용 격차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해결되지 않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차이로 결국, 우리나라 여성들은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적 요인에 놓인 셈이다. 세 번째는 경제적 부담이다. 지난 6월 11일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고 발표했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작년보다 11.8%가 올랐다고 전했다. 또한 자녀 1명을 만 18세까지 키우려

면 약 3억 6,500만 원이 든다는 분석 결과에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부담감을 느껴 결혼을 포기하는 추세이다.

2. 심각성

저출산 사회가 시작됨에 따라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줄어들고,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의 우리나라 인구 구조 전망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도 0~14세 이상 인구는 11.5%, 15~64세 이상 인구는 71%, 65세 이상은 17.5%로 이미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경제활동 주체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노동 인력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또, 상대적으로 소비성이 낮은 노년층의 비중 증가는 사회의 전반적인 소비 감소 현상을 일으키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3. 해결방안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지원이다. 출산장려금, 육아 장려금, 시간제 보육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혜택 지원이 있다. 두 번째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과 같은 거주와 관련된 혜택과 비용 지원이다. 세 번째는 육아휴직 지원 확대 및 여성 경력 단절 개선인데 육아휴직의 급여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근로 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급 휴가 등을 통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들이 있으며, 여성의 경력 단절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 일자리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제도 개선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력도 보여주고 있다.

저출산 사회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경력과 경력 보장을 위해 결혼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다.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더라도 삶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일 것이다.

교수칼럼

교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박기범 교수 (사범대학장·국어교육과)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과 욕설, 학부모의 모욕과 협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교권 추락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교육 현장의 황폐화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교권이 회복되어야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교육력이 강화될 수 있다. 교권이 추락하면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이는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교권이 추락하면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끌려다닐 수 있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학교의 교육 목표와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그럼,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당연한 제안이겠지만 학생의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시급하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을 강화해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는 창의성과 함께 올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모욕과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공식적인 통로나 방식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 원활하게 소통함으로써 오해와 불신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협력할 방안을 찾아 나선다면 지금과 같은 교권 추락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권이 회복되면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모두 보장됨으로써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 동기와 교사의 사기가 높아지며, 학교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학교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투고

복풍

“네 말은 내가 벌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말이지.”

네르온이 말했다. 하늘은 먹구름이 끼었다.

“그렇네. 자네가 가서 이 빛의 단검으로 그자를 찔러야 하네.”

현자이자 늙은 마법사 브로파인이 담뱃대를 문 채 말했다.

“그것도 나 혼자서 말이지?”

네르온이 물었다.

“그렇다, 형제여.”

망치를 든 헤르딘이 말했다. 그는 기다리다가 못 참고 나섰다.

“열한 번째 말하는 거지만. 난 네 형제가 아니야. 난 너와 같은 피가 흐르지도 않고. 너 같은 상스러운 성기사 놈하고 유대감을 갖고 싶지 않아.”

내가 이 일을 맡는 건 엘렌더 그녀를 위해서 하는 거야...”

같은 일행인 고르빅이 팔짱을 낀 채 네르온을 쳐다봤다. 네르온이 말하는 중이었다.

“...물론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나 때문에 피해를 볼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고.”

네르온이 태도를 바꿨다.

“투석기로 날 쏘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날 보라고.” 세르길이가 두 팔을 벌렸다. “이 말라빠진 몸뚱이로 두꺼운 갑옷을 두른 그놈을 무찌른다는 게 가능해 보여? 그것도 이 조그마한 단검으로?”

세르길이가 단검을 들어 보였다.

일행은 네르온을 투석기에 올려두었다.

“기다려! 잠깐!”

네르온이 발악했다. 일행은 네르온이 못 움직이게 묶었다.

공병 난쟁이가 투석기에 달린 타륜 비슷한 걸 돌려 발사를 준비했다.

“가서 안부 전해주게. 놈의 엉덩이를 걷어차 주는 것도 잊지 말고!”

난쟁이 아프로가 킬킬댔다. 일행이 투석기를 움직여 쏘 방향을 맞췄다.

“좋아! 지금이야!”

아프로가 손을 떼고 소리쳤다. 성기사 헤르딘이 레버를 당기고, 타륜이 돌아갔다. 네르온은 날아갔다.

눈을 뜬 네르온이 고개를 들었다.

“네 실수를 만회하려고 돌아온 거겠지?”

질은 보라색 망토를 두른 케르코딜이 말했다. 네르온이 무릎 꿇어 할 자였다. 투구를 쓴 케르코딜이 탑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

투를 지켜봤다. 케르코딜의 지배에 맞서는 자들의 항전이였다.

“어둠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네르온. 그것에는 상상을 초월할 힘이 담겼지.”

케르코딜이 고대 문자가 새겨진 검을 쥐고 네르온에게 갔다.

“네 의도는 좋았다, 음유 시인. 불행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 그런 건 신의 마법 같은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야.” 케르코딜이 미소 지었다. “넌 여신을 찾아갔다. 넌 그녀에게 간청했지. 네가 원하는 걸 이루는 데 필요한 걸 달라고. 내가 왜 이렇게 잘 알까? 누가 널 그녀에게로 안내해 줬지?”

“너...”

“불쌍한 네르온. 네가 목적을 달성한 후에, 방심한 틈을 타서 네가 받은 힘을 가로챘다. 널 도와줬던 떠돌이 기사 아르페온이 바로 나다.”

소설에서나 벌어지던 악의 화신이 세계를 손아귀에 거머쥐려는 일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자유를 갈망하겠지. 곧 있으면 모두가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케르코딜이 말을 멈췄다. 일행이 투석기로 쏜 돌이 날아왔다. 케르코딜이 돌을 반으로 갈랐다.

틈을 타서 네르온이 케르코딜에게 달려들었다. 속박을 풀 네르온이 단검으로 케르코딜에게 해를 주지 못했다. 케르코딜의 팔에 막혔다. 케르코딜은 힘을 주는 기색이 없었다.

케르코딜의 검에 새겨진 문자가 사라졌다. 동시에 네르온의 날이 액체로 변해 바닥을 적셨다.

네르온은 뒤로 물러서 날이 사라져 무기로서의 본분을 잃은 단검을 봤다. 케르코딜은 검 손잡이 끝으로 네르온을 찼다. 네르온은 눈앞이 핑 돌았다.

네르온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이다, 네르온!”

케르코딜이 검을 들어 올렸다. 케르코딜은 하늘을 봤다. 어두컴컴한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다. 섬광이 번뜩인 후에 브로파인 일행이 나타났다.

“일어나게, 자네가 시간을 끌어준 덕에 도착했군.”

브로파인이 지팡이를 짚고 말했다.

신문방송국 홈페이지가 새로워졌어요! 뉴미디어 시대, 저널리즘의 변화에 발맞춰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어요! jj.ac.kr/jnews

신문방송국 홈페이지로 확대했어요! 기존 인터넷신문(news.jj.ac.kr) 신규 홈페이지(jj.ac.kr/jnews) 기존의 인터넷 기사 중심의 홈페이지에서 신문방송국 전체 홈페이지로 신문방송국 정보의 대학신문사교육방송국 자료를 포함하는 홈페이지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카테고리를 새롭게! 신문방송국(신문사, 방송국)의 현황과 역할을 한눈에!

신문사의 카테고리 구조화하고, 방송국의 카테고리도 세분화하고!

새로운 홈페이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jj.ac.kr/jnews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신문방송국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 간 | 김주란 편집장 | 송민호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쇄: (주)다울 인터넷신문: jj.ac.kr/jnews

Jeonju University's Job Plus Center Holds 'JJ Job Fair'

Jeonju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today (1st) that it held the 'JJ Job Fair' at Jeonju University's Harim Mission Hall. The fair aimed to connect excellent job opportunities in the province and address youth unemployment. 25 excellent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from the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event.

JJ Job Fair provided comprehensive employment support services, including a Corporate Information Center with 25 companies, an Employment Senior Current Mentoring Center with 5 companies, an Integrated Counseling Consulting Center with 6 institutions (such as Jeonju Health Welfare Center), and an Event Center offering services like job interview suit rental, job photo, and job card.

The fair featured 10 public institutions in the province (including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Jeonbuk Techno Park, Jeollabuk-do Economic and Trade Promotion Agency, Jeonbuk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motion Agency), five secondary battery-related companies (such as Vinatech, Jeongseok Chemical, Sungil Hi-tech), and 10 excellent companies in the province (including Kwang Electronics Co., Ltd., Oditech Co., Ltd., Harim Co., Ltd.). These companies shared high-quality recruitment information, conducted on-site interviews to hire talented individuals, and established a practical recruitment cooperation system.

The Senior Employment Mentoring Hall included mentors from five companies,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These mentors shared their field experiences on job competency and the job preparation process.

Additionally, six organizations, including the Jeonju Health Welfare Center and the Jeollabuk-do Job Center, operated an integrated counseling consulting center. This center provided practical counseling services, covering youth employment policies, youth job policy information necessary for young people preparing for employment, and job preparation stress counseling.

During the event,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delivered coffee and drinks to support young job seekers. He expressed his intentions to increase young job seekers' interest in excellent companies in the province through the JJ Job Fair event and help develop outstanding local talent.

Lee Sang-haeng, head of the University Job Plus Center, who led the event, said, "We will continue to provide a venue for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excellent companies in the province and job seekers. Our goal is to expand opportunities to hire exceptional talent in the province and take the lead in revitalizing local industries."

| article University Job Plus Center
|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Lee Jin-seok, head of Jeonju University, won a commendation from the chairman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Lee Jin-seok, the head of Jeonju University, recently received recognition for his work on the LINC 3.0 project. He was honored at the 2023 LINC 3.0 Award on October 31 and received a commendation from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Since 2003, Lee Jin-seok has been dedicated to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nd has played a key role in securing variou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ject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and Jeollabuk-do. His contributions have greatly facilitated collabo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leading to the revitalization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Notably, starting in 2022, Lee Jin-seok served as the vice president of the Honam Jeju region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formation Officers' Council. In this role, h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and achievements of the 3rd stag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leading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LINC 3.0),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an effectiv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system. This dedication and expertise earned him the commendation he received.

Regarding his future plans, Lee Jin-seok, the team leader of the LINC 3.0 project, expresse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s transitioning from the establishe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leading university system to the Regional Innovation-Oriented University Support System (RISE). This new model aims to foster regional, industry-academia, and global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and they are committed to presenting innovative ideas and becoming a leading hub university and community.

| article LINC 3.0 Business Group
|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will be Hosting an Exhibition to Showcase the Achievements of Four Universities

The LINC 3.0 Project Group of Jeonju University, led by President Park Jin-bae, has announced that the exhibition will take place in the central hall of Jeonju University Student Center from November 1st to 3rd. It will feature the accomplishments of students involved in the start-up club, capstone design projects, and field practice semester system.

The exhibition aim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to witness the progress and outcomes of the showcased projects. Additionally, on November 2nd at 14:00, there will be a simultaneous presentation of the 2023 LINC 3.0 Startup Club Final Results and the 2023 JJ Capstone Design Competition at the exhibition hall.

To enhance visitor understanding and engagement, students have also prepared prototypes and highlighted various photo and video contest winners related to the projects. Notably, the Capstone Design Competition, which involves collaboration with Gunjang University, Jeonju Electric University, and Jeonju Vision University, is expected to foster meaningful cooperation between the four institutions.

Kim Sang-jin, the head of LINC 3.0 business, expressed his satisfaction with the year-long support provided to the students. He commended their hard work and determination to achieve their dreams and expressed his hopes for fruitful outcomes as a result of their efforts.

| article LINC 3.0 Business Group
|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and the Wansan-gu Children and Social Welfare Meal Management Support Center in Jeonju implemented nutrition and hygiene education for the elderly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Children and Social Welfare Meal Management Support Center in Wansan-gu, Jeonju, operated by Jeonju University (President Jin-bae Park), announced that it conducted nutrition and hygiene education for senio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registered with the center from October 19 to October 31.

The purpose of the training held this time was to provide nutrition education under the theme of 'Healthy eating habits for the elderly, eat well,' to resolve nutritional imbalanc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through a balanced diet.

Through this education, senior citizens can correctly recognize and have the right eating habits through nutrition knowledge education that they must know in old age, such as why they should eat food evenly, what role the food we eat plays in the body, and how much food we need to eat for health.

Also, 'Let's do it together! Hygiene education under the theme 'Washing hands properly' conveyed the importance of hand washing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nd how to manage personal hygiene.

Center Director Cha Kyung-hee (Professor of Korean Culinary Arts) said, "We will continue to provide a variety of programs related to the health of the elderly through professional meal management support that adds nutrition, safety, and social value."

| articl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全州大学留学生，与传统文化相容



据全州大学对外协力弘报室7日消息，全州大学（校长朴珍培）韩国古典学研究所（HK+研究团队）的On-Dara地区人文中心成功举办了题为《留学生，与传统文化相容》的留学生体验传统文化活动。

此次活动由On-Dara地区人文中心（主任徐贞华，音译）与全州大学国际交流院（院长诸慧琴）、古典翻译 育院全州分院（分院长金建宇，音译）共同举办，于11月4日（星期六）上午9点至下午6点在古典翻译 育院全州分院和韩屋村附近进行。

由20多名外国留学生组成的体验团先在全州乡校学习韩国的传统文化和礼仪，然后制作并品尝了韩国的代表性菜肴-拌饭。下午，他们穿上韩服前往庆基殿，学习了太祖御真的历史。此外，古典翻译 育院全州分院还为他们提供了由名家进行的国乐演讲，还一起唱起了“阿里郎”，并亲自选取了自己喜欢的文字写在传统扇子上。

参加“留学生，与传统文化相容”活动的中国留学生王胜贤（音译）表示：“因为这个活动，我第一次来全州韩屋村，这里热闹非凡，还有很多和我们一样的外国人，让我感到很新奇。一整天都穿着韩服四处走动，觉得韩服非常漂亮，与韩屋村非常搭配。另外，穿着传统服装学习韩国礼节，让我体验了韩国文化，也学到了很多知识。”

另一位中国留学生朱甘（音译）表示：“事实上，我来韩国留学，但过去并不了解韩国文化。但通过今天的活动，我对韩国的历史和文化有了一些了解，这让我很兴奋。另外，我还了解到中韩文化有许多相似之处。通过在传统扇子上写韩国字学习韩文，也非常有趣。这是一次非常有趣的体验。”

全州分院院长金建宇表示：“来自中国的20多名交换留学生参观了古典翻译 育院全州分院，学习了板索里，并用毛笔书写韩国字。参加的留学生和我们的工作人员欢声笑语，在融洽的气氛中进行了文化体验。特别是负责书法的尹百日（音译）老师用毛笔在扇子上书写了寄予希望的文字作为礼物送给留学生。就像留学生要求书写的《大富大贵》、《一路平安》等文字内容一样，希望这些宝贵的经验成为韩中关系的一粒种子，为未来相互理解和相互发展打下基础。”

此外，On-Dara地区人文学中心定期 设“小小沙龙”等个性化课程，还 展园艺疗愈项目“花样青春：献给家庭主妇”的讲，以及面向工学生的人文学专题讲座“文工兼掌”等。有关活动的详细信息可通过全州大学HK+研究团队（www.jj.ac.kr/hk）获得。咨询电话：063-220-3201-3, 3207。

加油！支持你们取得A+



全州大学校长朴珍培在期中考试之际（10月23日），在学校国际 育广场为在校留学生以《加油！支持你们取得A+》为题进行了分发零食活动。

这次活动由朴珍培校长和 职员工亲自准备了饮料、甜甜圈和抱膝毯子，并 这些礼品亲自送给了每一位学生，并向他们表达了鼓励和支持之心。

中国留学生杨赫（音译，管理学专业）表示：“在我们的祖国，我们看不到这样的文化，我们非常感激这份关心和支持，在期中考试的时候，我会更加努力，以更好的成绩回报学校的关心。”

全州大学校长朴珍培说：“以非母语听课，参加考试，完成作业和发表，评估学术成绩，这些留学生们非常令人自豪。我 把更多的时间投入到帮助留学生在韩国的生活和学业上。”

此外，为了取得 育国际化能力认证，全州大学的所有部门正在制定和推进吸引和管理优秀留学生的战略。



교육방송국 JEBS

"지성과 낭만의 소리,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교육방송국 교내 라디오 안내]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해 11월 16일(목) 교내 라디오는 하루 휴방합니다.

[라디오 플레이어리스트 이벤트 안내]

이벤트 안내
-기간: ~12월 01일(금), 23시 59분까지
-대상: 재학생 누구나!
-참여 방법: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교육방송국' 채팅(상단 QR코드 스캔)으로 신청곡 을 보내주세요!
-당첨자 공개일: 12월 04일(월)
-당첨 인원: 10명
-상품: 상품권



[정기 예능 소개]

이달의 예능: 인물퀴즈!
팀을 나눈 후, 다양한 분야의 인물사진을 보고 그 인물을 맞추는 과정 속 일어나는 경쟁과 노력에서 보여지는 출연진들의 케미가 즐거움과 긴장감을 주어 사람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획자: 최윤주
촬영자: 선수경
출연자: 박대한, 김유민, 김유빈, 김경인, 김서연, 한연정

「11월 COMING SOON!」



[교내 라디오 방송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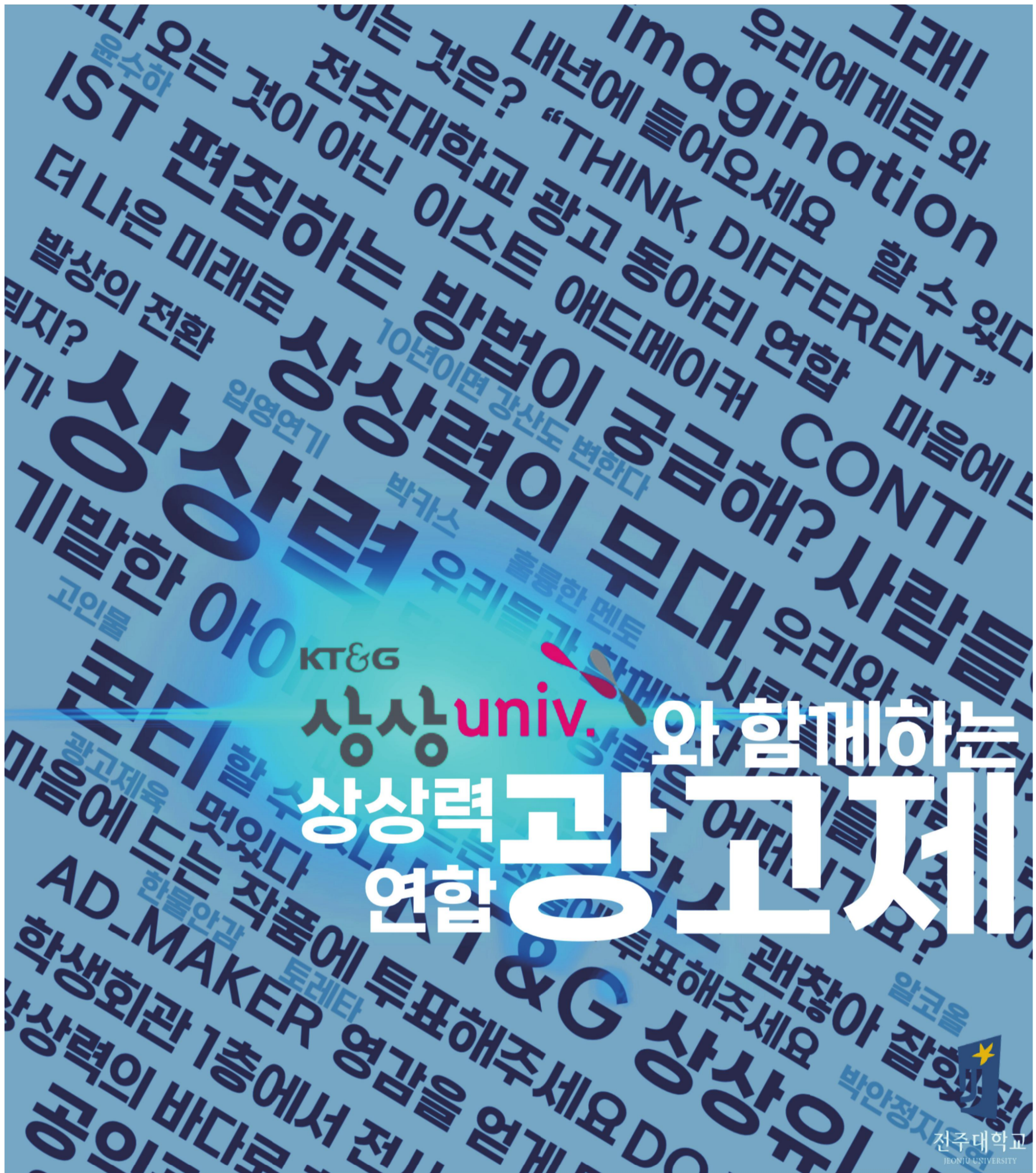
[뉴스] 정오의 천장 : 월, 수, 금 점심방송
[종교] 십자가 사랑 : 화, 목 점심방송
[음악] 크레센도 : 매 아침방송 + 수요일 저녁방송



[자유] 타임머신
월요일 저녁방송
과거의 건축물 이야기
[자유] 별자리 여행
화요일 저녁방송
별자리들 속 이야기 여행
[자유] 은가비
목요일 저녁방송
교훈을 얻는 역사 이야기



문의사항은 맨 위 QR코드를 활용해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T&G

상상univ.

와 함께하는

상상력 연함 광고제

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일시

전시 기간: 2023. 11. 21(화)
~ 11.23(목)
전시 시간: 10:00 ~ 17:00

장소

학생회관 1층
학생회관 앞 로터리

참여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콘티/애드메이커/이스트



후원

